

## 포스텍, C형간염 치료기술 신품제약에 이전

포스텍 포항공과대 연구팀이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해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 이전했다. 일 포스텍에 따르면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 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이를 신품제약에 이전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동물실험 결과 기존 C형 간염 치료제보다 효능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형 간염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의 페가시스, 미국 머크의 페그인트론 등 폐길화 인터페론을 리바비린과 병용해 사용하고 있다. 폐길화 인터페론은 C형 간염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고자 항바이러스성 물질인 인터페론 알파에 합성고분자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접합한 물질이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간 외에 다양한 장기에 전달되고 반복 투여하면 탈모와 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인터페론 알파에 합성고분자가 아닌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접합한 것으로 폐길화 인터페론보다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히알루론산은 동물의 관절, 안구의 유리체 등에 있는 생체고분자 물질이다. 김웅희 기자 333 % ! # ( +) :

저작권자 © 대구 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